

## 김호규 위원장 등 금속노조 임원 10기 집행 시작

10일, 노조 사무처 시무식·투쟁사업장 간담회...김호규 위원장 “금속노조 자부심 회복하겠다”



김호규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등 임원들이 10월 10일 노조 사무처 시무식으로 10기 집행을 시작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연 시무식에서 “금속노조라는 자부심을 회복하겠다. 10기 이후 집행부가 새 출발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2년 3개월 동안 동지들과 함께 하겠다”라며 10기 집행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노조 임원들은 이어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시그네틱스 분회, 콜텍지회, 콜트약기지회, 파인텍지회,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하이텍

알씨디코리아분회 민주노조사수 투쟁위원회, 자동차판매연대 등 투쟁사업장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투쟁사업장 조합원들은 “투쟁은 각 투쟁사업장이 하더라도 금속노조가 뒤에서 든든히 받쳐줘야 한다”라며 “투쟁사업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써 달라”라고 당부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투쟁사업장 문제를 어디부터 풀어야 할지 막막하지만, 동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라며 “서로 눈높이를 맞춰 동지들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사안별로 어떤

해법이 필요한지 고민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노조 임원들은 이날 민주노총 임원들과 당선인사를 나누고, 노조 사업 추진계획 공유와 운영협의 등을 논의하는 임원회의를 열었다. 노조 임원들은 10월 11일부터 10월 17일까지 각 부서와 업무 인수·인계·질의·토론 등을 벌인다.

김호규 위원장과 황우찬 사무처장은 10월 10일부터 상무집행위원회 인사를 위한 면담을 시작해 10월 20일 무렵 사무처 인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 악질 노조파괴범 최동열, 징역 1년 법정구속

11일, 서울중앙지법 기룡 전 회장 처벌...정규직 전환 합의 무시, 임금·퇴직금 2억7천여만 원 떼먹어

노사가 맺은 정규직 전환 합의를 어기고, 야반도주까지 벌인 최동열 기룡전자 전 회장이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기룡전자분회(분회장 유흥희, 아래 분회) 조합원 열 명의 임금, 퇴직금 2억7천여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월 11일 “체불임금, 노동자 수, 규모를 비추어 봤을 때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최동열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분회 조합원들은 2005년 7월 노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전원 해고된 후 1,895일 동안 세 차례 고공농성, 94일 단식농성 등을 벌이며 싸운 끝에 2010년 11월 회사와 정규직 전환 합의를 맺었다.

기룡전자는 노사 합의에도 불구하고 2013년 5월 출근한 조합원들에게



업무 대기 지시를 내리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2013년 12월 야반도주했다. 기룡전자는 2014년 11월 폐업하기 전까지 1년 7개월가량 조합원 열 명의 임금, 퇴직금 2억6천7백여만 원을 주지 않았다.

최동열은 임금을 지급하라는 2015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뒤에도 임금 지급을 거부하다 지난해 12월 검찰에 기소됐다.

유흥희 분회장은 “최동열이 야반도주한 뒤 임금을 떼먹고 도망간 최동열을 구속시키겠다고 결심했는데, 정말 그 뜻대로 이뤘다”라며 “여한이 없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고맙다”라고 밝혔다.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최동열 전 회장은 노동조합이 온갖 고생 하며 노력 끝에 맺은 사회 합의를 무시하고, 기룡전자분회 조합원들의 임금을 악의로 주지 않았다. 야반도주까지 하고, 법정에서 허위 진술과 변명으로 일관했다”라며 “기업 임원의 사회 합의 위반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라고 환영했다.